

MOVE BY STORY VOL. 03

20121230

당신을 흔들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변화를 꿈꾸게 하는 뉴욕 로어 맨해튼 여행 친구 - 반짝반짝 빛나는 원더걸스 예은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변화가 필요할 때 철학을 만난 필로
MUSE	지혜롭게 변화하고 싶은 당신에게 - 이야기 테라피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3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에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이예결, 김광혁
사진촬영	안선희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thanksbooks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한 달에 세 번,
귀로 듣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마레에 가면 누구나 예술가가 된다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여배우들 (정경미 외 3인)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게 되는 곳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뉴욕 **로어 맨해튼**
이 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꿈꾸게 된다

TRAVEL

손미나의 여행 사전

변화를 꿈꾸게 하는 뉴욕 로어 맨해튼

LOWER MANHATTAN

스토리텔러 신민정 — haneul@bombaram.net

유행과 예술이 탄생하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 살아 숨쉬며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 뉴욕. 뉴욕에 가보지 않아도 좋다. TV쇼, 책, 영화, 음악,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장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오늘도 당신을 유혹하고 있으니.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로어 맨해튼으로 떠나보자.

♪ New York New York – Frank Sinatra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 New York, New York
These vagabond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 New York, New York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 top of the heap

These little town blues, are melting away
I'm gonna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 in old New York
If I can make it there, I'll make it anywhere
It's up to you – New York,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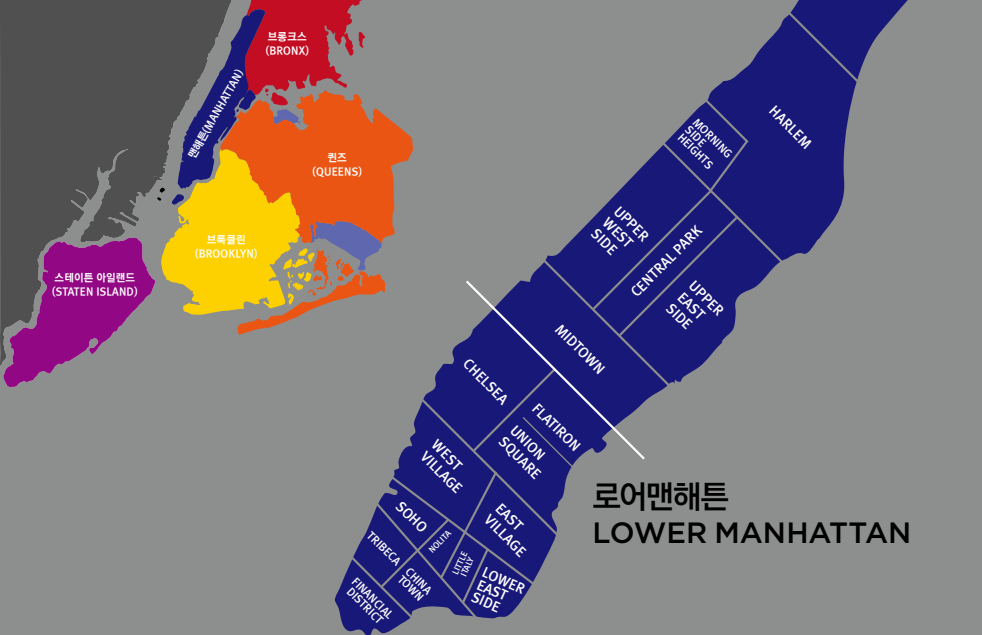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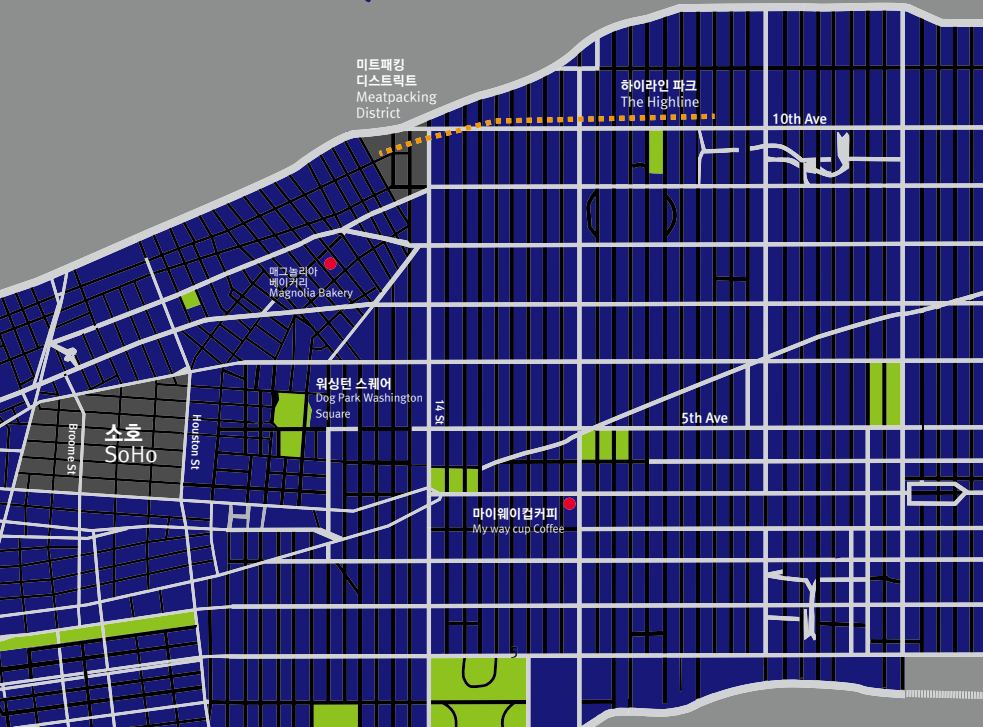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손여사를 만드는 사람들〉 진행 손미나 패널 바닐라랜 성우 정기향 감독 이예결 대본 윤선예 프로듀서 문두열 음악 이택승 진행 김초희



로어맨해튼 LOWER MANHATTAN



로어 맨해튼의 매력포인트 1.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맨해튼 패션의 중심지이자 잇 플레이스.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는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에서 14th street 에 이르는 거리다. 미트패킹(Meatpacking)이라는 그 이름처럼 20년 전에는 도살장과 축산가공공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도축업 시장규모가 감소하면서 놀랍게도 거리 곳곳에 트렌디한 레스토랑, 카페, 편집숍, 브랜드 숍, 부티크 호텔 등이 즐비한 곳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이끄는 화려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뉴욕의 물 좋다는 클럽들이 자리잡고 있어 진정한 뉴욕의 핫피플들은 밤에 이곳을 찾는다. 도시의 밤 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이곳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사실 이곳은 화려한 명성과는 다르게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낮은 건물들이 즐비하다. 그 이유는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 내부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기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디자이너를 꿈꾸며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MEATPACKING DISTRICT





로어 맨해튼의 매력포인트 2. 소호

뉴욕의 패션 일번지 소호는 그야말로 쇼핑의 천국이다. 미국 로컬 브랜드 숍부터 명품 숍, 편집 숍, 빈티지 숍, 인테리어 숍, 코스메틱 숍, 액세서리 숍, 뉴욕에만 있는 단독 수입 숍 등이 있어 쇼퍼홀릭들은 지갑을 달을 새가 없다. 뿐만 아니라 코블 스톤 바닥과 주철 건물들로 가득찬 소호 거리는 올드 뉴욕의 매력을 뽐내내고 곳곳에 갤러리까지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소호도 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작품을 팔았던 가난한 예술가들의 장소였다고 한다.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문화예술 분위기가 무르익어 명소로 소문이 날 즈음 대기업 자본이 잠식하면서 예술가들은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히스토리도 있다. 주말 오후 소호 거리는 서울 명동처럼 붐비니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평일에 갈 것을 권한다.

로어 맨해튼의 매력포인트 3. 미드

애플 노트북, 마늘로 블라닉, 컵케이크, 브런치 등 수많은 유행과 문화를 낳고 우리에게 뉴욕의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 섹스앤더시티. 이 드라마에 한때 푹 빠졌던 당신이라면 로어 맨해튼 구석구석 둘러야 할 곳이 많다. 그리니치빌리지 캐리의 집부터 사라베쓰 레스토랑, 매그놀리아 베이커리까지! 섹스앤더시티에 이어 스타일 아이콘의 세대교체를 이룬 가십걸Gossip Girl도 볼 만한 드라마다. 뉴욕의 어퍼이스트사이드를 배경으로 재벌 2세들의 사랑과 질투, 계략, 우정을 다루며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미드는 이외에도, 대한민국 30대라면 두 번 이상은 봤을 시트콤 프렌즈, CSI:뉴욕, White Collar 등 다양하다. 뉴욕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드로 돈 안 드는 선형학습을 해 보자.





로어 맨해튼의 매력포인트 4. 하이라인 파크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오르세 역을 개축하여 19세기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라면 여기 뉴욕에는 버려진 기차길을 생태공원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전망과 여유를 안긴 산책길이 있다. 첼시의 풍경은 물론이고 허드슨 강까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원의 개념을 깬다. 넓은 잔디밭 대신 긴 기차길을 따라 산책로가 쪽 이어져 있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은 주변의 공사장마저도 아름답게 물들인다.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도 좋지만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가 다리 밑에 야의 카페테리아가 있다. 여기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며 허드슨 강을 바라보는 척 잘생긴 바리스타 청년을 보는 게 다리의 피로를 푸는 데 더 좋을 것 같다.



로어 맨해튼의 매력포인트 5. 키스 해링

앤디워홀과 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 로어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클럽에서 만난 젊은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그는 수차례 경범죄로 잡혀가면서도 지하철역, 담벼락에 낙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이 무명의 괴짜 낙서광은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술계의 관심을 받아 여러 전시에 초대되었고 공공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탄생과 죽음, 전쟁과 평화, 반핵, 인종차별, 에이즈 등 무거운 주제도 경쾌하게 그려내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그의 인기도 잠시, 당시 미국 사회의 큰 문제였던 에이즈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의지와 집념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듯 하다. 의류, 핸드폰 케이스 등에서 그의 작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KEITH HARING



책을 사랑한 트렌드 일번지. 로어 맨해튼의 동네서점들 192BOOKS, THREE LIVES & Co., Printed Matter.

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곳, 로어 맨해튼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서점들이 있으니 부디 대형 자본에 떠밀리지 않도록 뉴욕에 가면 꼭 둘러보고 책 한 권 구입해 보는 건 어떨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미래의 예술가들이 꿈을 꾸는 곳이자 뉴욕대학교(NYU)도 자리잡고 있는 로어 맨해튼에는 지성과 낭만이 가득하다. BARNES & NOBLE과 같은 대형서점도 좋지만 작은 동네서점 탐방으로 진정한 뉴욕커의 향기를 느껴보길 바란다.

첼시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192BOOKS는 예술, 소설, 여행, 아동도서를 주로 다룬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도서 코너에서 책을 읽다보면 어른들도 숨은 보석을 찾듯 빠져들게 된다. 특이한 팝업북도 많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친절한 직원의 미소는 덤. 주소 192 10th Ave.

192BOOKS와 마주한 자리에 서점인지 갤러리인지 스케치북 파는 곳인지 헷갈리는 곳이 하나 있다. 바로 Printed Matter. 인디잡지를 후원, 전시, 판매하는 곳으로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주소 195 10th Ave.

뉴욕의 여느 거리들과는 다르게 웨스트빌리지는 길이 복잡하게 나 있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러나 여행 중에 길을 잃으면 어떠하리. 여유있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보면 THREE LIVES & Co.와 같은 동네서점을 만날 수 있다. 마이클 커닝햄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점 중 하나'라고 찬양한 것에 비하면 규모는 작다. 그러나 빼거거리는 마룻바닥, 넓은 책장 등 아날로그한 풍경과 작지만 고풍스러움을 간직한 이곳을 드르는 사람은 누구나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주소 154w. 10th St.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백창하·김병록 지음 /
이야기나무 / 15,000원
이외에도 로어 맨해튼에는 작은 동네서점들이 더 많다.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에 이어 뉴욕의 아날로그 책공간 시리즈도 나오면 어떨까라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본다.

여행 친구 반짝반짝 빛나는 원더걸스 예은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아름답고 깊은 보이스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다. <손미나의 여행사전> 세번째 손님은 원더걸스 예은! 뉴욕에서의 도전과 변화.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Q 뉴욕 맨해튼, 예은 양에게 특별한 도시일 것 같은데요.

네. 원더걸스가 2009년에 뉴욕에 가서 투어를 시작했어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고 2년 반 정도를 뉴욕에서 보낸 것 같아요. 맨해튼 안에 살아서 놀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웃음)

Q. 예은 양이 2년 반을 머문 뉴욕은 한마디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뉴욕은 작은 지구 같아요. 거리를 걷다 보면 한 블록 안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른 사람부터 거대한 사람까지 다양함이 공존하거든요. 그렇다보니 뉴욕에서는 '나는 나, 저 사람은 저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양성에 기대어 저도 뉴욕에서는 과감한 스타일을 많이 시도했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안전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도 주변 분들이 다 저한테 많이 과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Q. 뉴욕에서 예은 양 자작곡을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팟캐스트 청취자를 위해 한 곡 불러줄 수 있을까요?

드림하이2 OST에 실린 <Hello To Myself> 불러드릴게요. 2009년도에 썼던 일기 내용을 가사로 바꾼 거예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보낸 첫해였어요. 연말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죠.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될 미래의 나에게 '나는 지금 2009년의 12월이고,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야. 미래의 너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달라.'고 전하는 내용이에요.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애잔해지는 노래죠.

《Hello To Myself》 예은 작사·작곡

Hello 여긴 이천십이년 이월 아주 추운 겨울이야
Where are you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니
그토록 원하던 꿈에

여기 난 아직 남겨지고 또 울고
다치고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
그치만 난 날 보고 웃겠지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울지 말라고 날 위로해줄래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할 수 있다고 너 말해줄래
Hello hello 울지마 Hello hello 일어나

How are you
어떠니 꿈을 이룬다는 건 정말 꼬집어도 아프지 않니
어쩌면 이젠 네겐 평범한 일상이라 때론 지겹니
혹시 너도 외롭고 지치면 여기 꿈꾸던 날 기억해줄래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여기 날 생각하며 웃어 줄래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가슴 벅차게 행복해 줄래
Hello hello 웃어봐 Hello hello 그렇게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여기 날 생각하며 웃어 줄래
Hello to myself hello to myself
꿈꾸던 날 잊지 말아줄래

Hello 여긴 이천십이년 이월 아주 추운 겨울이야...

Q. 예은 양의 꿈이 궁금해요.

거리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뉴욕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요즘엔 책도 내고 싶고, 앨범 프로듀싱,
연기, 라디오 DJ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웃음) 가까운 시일 내로 인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변화된 예은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더걸스 예은의 자작곡 《Hello To Myself》 라이브와 그녀가 말하는 뉴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필로 이경희 변화가 필요할 때 철학을 만난 필로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변화'란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곧 변화의 과정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단 한 순간도 포즈(Pause)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삶은 계속 재생(Play)된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허탈해하는 그 순간에도 삶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는 아이가 자라듯 노인이 늙어가듯 성장과 소멸의 방향으로 동시에 흘러간다. 참 많은 물음표가 생기는 그 흐름 속에서 최면심리상담가 이경희 원장은 끊임없이 '근원'을 생각했다. 그에게 변화란, '가슴이 근원에 닿아 본래의 흐름을 찾는 것'이다. 세상 모두가 더 많은 플러스를 욕망할 때, 그는 근원(Zero)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급진적인 '변화'이기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를 '필로'라고 부른다. '이경희'라는 오랜 이름이 오히려 생소할 지경이다. 필로는 라틴어로 '철학자'를 뜻하는 '필로소퍼스(Philosophus)'를 떠올리고 본인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지금은 그 이름으로 '필로통합최면센터(www.modern-hypnosis.com)'를 운영하며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이름이 곧 평생 할 일(業)이 되었으니,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시작이 반이듯, 이름을 짓는 것이 반이다!

이른바 '영성가'인 그도 한때는 공대를 졸업하고 IT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한민국 고교생들이 흔히 겪는 패턴이지만, 철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그는 취직이 잘 될 거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이과에서 입시를 치르고 재료공학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LG EDS(現 LG CNS)'에 입사해 5년을 일했고, '아름다운재단'의 간사로도 1년을 일했다. 신촌에서 '이DEM IDEM'이라는 채식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고, 대학로에서 '푸시케 Psyche'라는 상담카페를 열기도 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평생을 두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그의 인생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들은 케이블TV에 출연해 국내 최초로 마취 없이 최면으로 수술하기에 성공한 최면가 필로가 한때 직장동료였던 이경희 씨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최면심리상담가가 된 것은 아니다. 10대 초반에 아버지의 책꽂이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입문'을 꺼내 읽은 이후로 무의식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 권해주신 심리학자와 인도 영성가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칼 융이 그러했듯이, 교회에 발길을 끊고 신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길을 선택했다. 1998년에는 PC통신 하이텔에 최초의 최면명상동호회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했고, 스승이 있는 곳이라면 열일 제치고 찾아가 성실하게 배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는 지금의 필로가 되어 있었다. 필로는 지금도 삶의 근원에 닿기 위해 흘러간다. 그것이 그의 변화이기에.

필로가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인도 철학자 마하리자의 책 읽기

삶의 근원을 탐구하며 신과 인간, 나와 남, 육체와 영혼, 물 질과 에너지 등의 모든 이원성과 일체의 분리를 넘어서 '하나 됨'과 모든 '이름'(becoming)을 넘어서 '있음'(being)을 강조한다. <아이엠댓! I AM THAT> <의식을 넘어서> <담배 가게 성자> 추천



2 미드 '로스트' LOST와 '배틀스타갈락티카' Battlestar Galactica 보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특히 로스트 마지막 시즌, 마지막 장면에서 '본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3 힐링 애니메이션 '충사(蟲師)', 보기

10권짜리 만화책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26권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생명의 근원에 가까운 충사(蟲師) 김코의 여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총명한 일체감을 다루고 있다.



4 전생을 상상하게 하는 음악 듣기

켈트족의 전통음악인 켈트 뮤직 Celtic Music과 아이리시 음악 그리고 인디언 피리로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 수백 수천의 전생이 떠오르면서 교묘하게 명상에 젖어든다.



5 '작은 나(ego)'가 사라진 사람 만나기

근원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이 크다. 근간에는 미내사(www.herenow.co.kr)의 월인(越因) 이원규 대표를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한다. 그의 책 <깨어있기>도 추천할 만하다.

MUSE

지혜롭게 변화하고 싶은 당신에게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이야기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며, 치유하기도 한다.
우리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로 Muse 세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마음에 풀고만 있는 것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의 거대한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 테라피〉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380쪽
이야기나무
17,000원

미카엘 엔데의 불후의 명작 <모모>에는 우리의 삶에 지표를 주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 모모와 회색도당의 이야기를 꺼내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간 도둑인 '회색도당'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느낌과 정성, 마음의 여유와 만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정과 배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알게 해주고 삶에서 그런 시간을 가능한 한 없애고 더 빠르게 기계처럼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시간의 은행에 저축하도록 한다.

회색도당들은 그 은행에 저축된 시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뺏으면서 점점 번성해간다. 그리고 회색도당들에게 설득당해 그렇게 시간을 시간은행에 넣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바빠지고, 더 효율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삶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들은 아주 소소한 감정들, 사소한 느낌들, 사소한 생각들, 사소한 사람에 대한 한 번의 마음 씀씀이,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눈길 한 번, 사소한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사소한 게으름, 사소한 몽상 뭐 그런 것들이었다.



현명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큰 소리의 외침보다는 바람결에 지나가는 작은 소리 한마디를 들을 줄 아는 것이고 나아가 사람 안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더 작고 정묘한 자연의 소리 그리고 나아가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작고 미미한 것들은 관심도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안정되게 하는 것들이 그 미약하고 작고 미미한 것들에 있기 때문이다.

있고 없음, 하고 안 하고의 작은 차이는 결국 시작과 끝, 하늘과 땅, 삶과 죽음의 차이이다. 어느 때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있음)'은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순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출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실천 가이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하는
작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내밀었어야 하는 작은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자.

〈이야기 테라피〉 행복에 대하여 中 story 22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